

현 불 뉴스

공동대표 5인 추대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박광서)는 지난 3일 다인 녹수정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에 지하(중앙승가대학장) 법장(수덕사주지) 광우스님(진국비구니회장)과 민병천 서경대총장, 고준환 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을 추대했다.

동학사 승가대 인가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3일 제2차 교육원회의를 갖고 동학사 승가대학을 기본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유학 장학승승을 신스쿨트와 팔리어 전공 2명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특별장학승은 중단기본교육기관(중국어대학)과, 중앙승가대, 강원) 졸업자에게 우선한다.

불국사 신도회 창립

조계종 제11교구(불국사) 신도회는 지난 11월 30일 불국사 삼검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신도회장에 권영락씨(경주중 교장)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는 불국사주지 설조스님을 비롯 23개 발사 신도회장단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실천승가회 세미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홀에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총회의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한 총회의장 설경스님의 기조발제로 진행된다.

"대법원판결따라 처리"

정부합동인원실은 지난 11월 25일 해인총림대학원위원회(위원장 등운)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와 관련한 회신을 보내 "현재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취소처분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부산 8개합창단 합창제

부산신불음악합창제가 지난 11월30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찬불음악만다라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합창제에는 동도사 서운암합창단, 동명불원 불비니합창단 등 부산시내 사찰소속 8개 합창단이 참석했다.

고속철 경주역사 '내남면' 확정적

건교부, 18일 공청회 거쳐 최종 결정... 문화재훼손 예상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시내에서 8km 떨어져 건천을 외곽을 지나는 경산시 압량면~단석산 근접통과~건천을 화천~내남면 안심리~울산을 잇는 노선으로 결정됐다. 역사는 내남면 안심리에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란 3일 건교부는 "당초 덕천리와 방내리를 놓고 막판 조율을 했으나 △덕천리의 경우 남산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문화계)이 있으며 △방내리는 문화재 훼손과 주민 이주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안심리를 제3의 대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과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일 "18일 열리는 공청회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이다"며 부인했다.

불교계와 고고학회를 비롯한 문화계는 내남면에 역사가 설치될 경우 경주의 역사성과 문화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천면에 역사가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고고학회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내남면 역사가 결정될 경우 고속철도와 관련된 문화재발굴조사에 일체 불참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8일 오후 3시 경주보문단지 육부촌에서 경주노선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내남면 안심리 역사 및 건천노선을 제시하고 바쁘면 연내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인천 첫 불교복지회관 건립

사암연 계획발표...월주스님 기금 1억 전달

인천지역 최초로 대규모 불교복지회관이 건립될 전망이다. 조계종 인천시암연합회(회장 장선일)는 지난 5일 송도비치호텔 무궁화홀에서 봉행된 '인천불교 증흥 및 시민복지를 위한 기원대회'에서 불교복지회관 건립 계획안을 발표했다.

인천시암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복지관은 △불교교양연말을 앞두고



외국근로자 위한 특별바자회 외국인 근로자 특활바자회

불교통신대학 내년 3월 개학

군불교진흥회, 군인·가족대상 포교사 양성

군포교사양성을 목표로 하는 불교통신대학이 내년 3월 문을 연다.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지난 11월29일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사단법인 설립기념회를 개최하고 97년도 중점사업으로 불교통신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년3월 문을 여는 불교통신

대학은 2년제이며 각 군법당의 장교 하사관을 비롯한 직업군인 군인가족 신도를 대상으로 1백여명 정원의 통신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통한 유능한 군포교사 양성을 위해 불교학개론 교리발달사 불교사 종교학 경전강의 선사상 불전개설 불교윤리 포교학개론

법회습의 등의 과목이 개설된다. 불교통신대학은 제1기 신입생을 오는 1월부터 3월까지 모집한다. (02)749-5135, 748-1728

가족중심 수행레저타운 세운다

백암사 '불교수련관' 내년 초파일 완공

가족끼리 수행과 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도전문 수행레저타운이 건립된다. 조계종 백암사(주지 덕심)는 경북 울진군 온정면 2만여평의 부지에 불자들의 수행·수련을 물론 문화생활 향유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에 따른 전천후 수행레저타운인 대한불교수련관을 건립한다.

"경북궁 불교문화재 반환불가"

국립중앙박물관, 교계요구에 입장표명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영모)은 최근 조계종의 경북궁안 불교문화재 반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보존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 '반환 곤란' 입장을 통보해 왔다. 박물관측은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낸 회신에서 "현재 소장중인 불교 석조문화재 32점은 거의 모두가 폐사지에 위

대한 △불교노인대학 △자원봉사센터 △비행청소년 순화를 위한 수감센터 등의 시설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간지역 불교증흥과 복지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 것"이라고 밝히고 복지회관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인천시암연합회는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2억여원의 자금을 확보하는등 이번 법회를 계기로 회관건립기금 마련과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연말을 앞두고 불교TV 자원봉사단과 육림공양회가 주최한 '외국인 근로자 특활바자회'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현대불교신문사 사옥 지하 다인 녹수정실에서 열렸다. 재가불자 신도복을 판매한 이번 특별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추운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쓰인다.

청하스님 법왕추대

조계종 반대등 파문예상

스리랑카 찬다난다 승왕(세계불교법왕청 본부 공동법왕)은 최근 조계종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을 세계불교법왕청 본부 공동대표인

적으로 1만 5천여명에 걸쳐 심신요양지구, 관광농장지구, 신도전문 콘도미니엄 등을 유치, 명실상부한 신도전문 수행레저타운의 모양을 갖춘다.

또한 대한불교수련관은 청수년들에게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돕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안목을 할 계획이어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덕심스님은 "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수련관 개원이 불교문화 향수에 한 획을 그을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음 되놓아야 무너진다

길을 가다가 얻어졌으면 얻어진 자리에서 스스로 얻어나가지 누가 일으켜주는게 아니다. 전생에 선업·악업을 지었다면 그 지은 자리에 또 되놓아야 무너진다. (향타운전)

첨천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첨천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이흥우 지음

탁월한 선지, 막행 막식 그리고 질풍 같은 선승의 삶을 산 경허선사!

64세, 그의 만년은 뜻밖에도 유행지인 갑산 응이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훗날 스승의 압적 소식을 들은 제자 만공과 혜월이 그의 무덤을 파고 다시 대비를 했다.

어느 여름날 경허스님은 제자 만공과 함께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걷다보니 다리가 아픈 만공이 쉬어가자고 졸랐다. 그 말을 들은 경허스님은 피를 하나 생각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불에다 "쭉" 하고 입을 맞추었다. 순간 동네 청년들이 "저 중놈 잡아라" 고함치며 달려왔다. 스승과 제자는 걸음이 나 살려라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단숨에 커다란 고개를 넘어 능선에 다다르자 스승 경허가 만공에게 물었다. "아직도 다리가 아프냐?"

신국판 288쪽/값 6,800원

경허선사의 생애를 은은한 필치로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필자 이흥우 씨는 오랫동안 조선시대 문헌부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냈다.

민족사판 <불교경전총서>는

불교경전

우리시대의 새로운 대장경입니다.

- 01 화엄경 김지건 역 값12,000원
- 02 유마경 박용길 역 값6,500원
- 03 묘법화경 이재호 역 값13,000원
- 04 금강경 정호영 역 값4,500원
- 05 능엄경 김두재 역 값9,500원
-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 값8,500원
- 07 정토삼부경 法順 역 값6,500원
- 08 범망경·지장경 一指 역 값5,500원
-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 값8,500원
- 10 백유경 현각 역 값6,500원
- 11 부도은중경(관음경·우림분경) 一指 역 값5,500원
-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 값5,500원
- 13·14 아함경①② 돈연 역 값1권 7,500원 2권 7,000원
- 15 법구경 석지현 역 값6,500원
-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 값7,000원
- 17·18 밀린다왕문경①② 동봉 역 (97년3월간행)
- 19·20 본생경①② 이미형 역 값1권 8,500원 2권 9,500원
- 21 미륵경전 이흥우·무관 역 값6,000원
- 22 해심밀경 묘주 역(근간) 값8,000원

* 범보시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합시다!

석지현 스님 에세이

바람의 길

시인이자 <선사감성사전>을 준비하고 있는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



석지현 스님의 에세이는 이 책 한 권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세이는 더 이상 쓰지 않을 작정이다. 그 이유는 이리저런 세속사들이 모두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지보다는 마음을 들뜨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것이 중생으로서의 지고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국판 270쪽/값 5,500원

한국의 전설적 선승 경허선사 이야기!

경허선사

鏡虛禪師

이흥우 지음



어느 여름날 경허스님은 제자 만공과 함께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걷다보니 다리가 아픈 만공이 쉬어가자고 졸랐다. 그 말을 들은 경허스님은 피를 하나 생각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불에다 "쭉" 하고 입을 맞추었다. 순간 동네 청년들이 "저 중놈 잡아라" 고함치며 달려왔다. 스승과 제자는 걸음이 나 살려라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단숨에 커다란 고개를 넘어 능선에 다다르자 스승 경허가 만공에게 물었다. "아직도 다리가 아프냐?"

신국판 288쪽/값 6,800원

경허선사의 생애를 은은한 필치로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필자 이흥우 씨는 오랫동안 조선시대 문헌부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